

초등학생 저학년과 고학년의 성폭력 피해특성 차이와 상관관계

조영란¹ · 김지은¹ · 박경민²

대구해바라기센터¹, 계명대학교 간호대학²

Differences in the Characteristics of Sexual Abuse Victimization between Low- and High-Grade Elementary School Children and Correlations among the Characteristics

Cho, Young-Ran¹ · Kim, Ji-Eun¹ · Park, Kyung-Min²

¹Daegu Child Sexual Assault Response Center, Daegu

²College of Nursing, Keimyung University, Daegu, Korea

Purpose: This study is attempted to figure out the characteristics of sexual abuse victimization in low- and high-grade elementary school children and furthermore to help develop appropriate preventive educational programs against sexual abuse by grade.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156 sexual abuse victims who were elementary school children and visited the Child Sexual Abuse Response Center in D City during the period from 2010 to 2012. Differences in general and victimization-related characteristics between low and high graders and the correlations among the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Results:** The result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low and high graders in two variables: offender-victim relationship, and the type of sexual abuse. Offender-victim relationship was in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the duration of victimization ($r=.576, p<.001$), frequency of abuse ($r=.546, p<.001$), location ($r=.479, p<.001$), and time ($r=.435, p<.001$). The type of sexual abuse was in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frequency ($r=.175, p=.029$) and time ($r=.261, p=.001$). **Conclusion:** Appropriate educational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for preventing sexual assaults in consideration of difference in victimization-related characteristics between low and high graders. In addition, such programs should be applied fittingly to the learners' grade, gender, and cognitive level.

Key Words: Primary school, Sexual abuse of child, Victimization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아동성폭력은 피해자가 성장기의 아동이고 사람에 의한 인위적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심리적 외상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며[1], 기질적 뇌 발달에 문제를 초래하여, 다

양하고 장기적인 정신과적 후유증을 가지고 올 수 있다[2]. 그러나 아동은 자기방어 능력이 없어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취약한 피해자 집단이 되기 쉬우며[3], 아동성폭력은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아동성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4].

경찰청의 통계에 따른 아동성폭력 발생 특성을 살펴보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전국의 수사기관에 신고된 강제

주요어: 초등학생, 아동 성폭력, 성폭력 피해특성

Corresponding author: Park, Kyung-Min

College of Nursing, Keimyung University, 1095 Dalgubeol-daero, Dalseo-gu, Daegu 704-701, Korea.

Tel: +82-53-580-3900, Fax: +82-53-580-3916, E-mail: kmp@kmu.ac.kr

Received: Apr 3, 2015 | **Revised:** Jun 4, 2015 | **Accepted:** Jun 18, 2015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추행 및 강간 범죄 건수는 2011년 1034건, 2012년 1086건, 2013년 1125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3년간 아동성폭력 발생 비율은 전체 성폭력 범죄 중 약 5.2%를 차지하였다[5]. 그러나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10년 전국성폭력실태조사에서 우리나라의 성폭력 신고율이 2.9%에 불과하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아동성폭력 발생 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6].

아동성폭력은 성인 또는 다른 아동이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법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연령이 아닌 아동에게 가해지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7], 성폭력의 법률적 의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근거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말한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행위이며, 유사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의미한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행위로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간음 이외의 성적 가해행위를 의미한다. 단, 13세 미만 아동은 형법 제305조에 의해 아동의 동의하에 간음·추행한 경우라도 강간 또는 강제추행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8].

아동성폭력은 0~13세까지 모든 연령에서 발생하고 있으나[3], 2010년 여성가족부의 보고에 의하면 6세 이하의 유아 피해자는 2000년 22.5%, 2010년 14.1%로 감소 추세이고, 초등학교생은 2000년 77.5%, 2010년 85.9%로 성폭력 피해아동의 과반수 이상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9]. 또한 경찰청의 ‘원스톱지원센터 사례집’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전국 원스톱지원센터를 이용한 아동성폭력 피해자 1,468명에 대한 분석결과, 유아 423명, 초등학교생 1,045명으로 초등학교생이 유아보다 2.47배가 더 많았다[10]. 이처럼 아동성폭력 피해자가 유아보다 초등학교생이 많고 증가하는 이유는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한 자녀 지도감독 소홀, 유해한 환경에 무방비한 노출, 아동성폭력 범죄의 발견·구조를 위한 시스템 미비, 실효성 있는 성교육의 미흡 등 사회적·환경적 변화 때문이다[11]. 또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확산으로 이를 이용하는 연령층이 저연령화 되어 초등학교생들도 일상생활에서 범람하는 성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쉽게 성폭력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12,13]. 따라서 초등학교생 시기의 성폭력 피해를 당할 가능성은 여성가족부 및 원스톱지원센터 보고서를 바탕으로 할 때 유아기보다 3배 정도 증가하므로 초등학교생에 대한 성폭력예방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9,10].

최근 초등학교생이 성적으로 조숙해지면서 사춘기 연령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으며[13], 아동은 사춘기를 지나면서 성에 관한 태도나 믿음이 형성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시기는 성폭력의 잠재적인 부작용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14]. 이러한 실정에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내에서 학교장이 정한 교사가 학교별 여건과 수준을 고려해 성교육을 시행하는 것"이라는 원칙론을 내세워 각 초등학교에서 연간 15시간씩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고[15], 성폭력 사건이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각종 대책을 쏟아내며 학교에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은 작은 실정이다. 교육부의 법적인 강화방안에도 불구하고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시간의 부족, 아동들의 연령을 고려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부족,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자료의 부족, 전문상담교사의 부족으로 교육기관에서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데 한계점이 있다[4,16].

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우선 초등학교생의 성폭력 피해특성에 대한 실태파악이 중요하며[17],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은 유아기, 고학년은 청소년기의 발달과정의 연속 선상에 있으며, 고학년 시기부터 신체적, 정신적인 발달의 남녀차가 현저하게 나타나며 이성에 대한 관심과 성적성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13,18] 연령별 발달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학년에 따라 구체적으로 피해특성을 분석하는 연구가 매우 필요하나 성폭력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을 뿐 아니라, 성폭력 피해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은폐되거나 개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특징이 있어[17] 피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또한 대상이 아동이라는 점 때문에 연구방법이나 절차상의 어려움이 많아[4] 관련 연구가 부족하며, 초등학교생 아동에 국한하여 조사한 국내의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성폭력 예방교육의 적절한 시기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Jeong 등[19], Lim[16]은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요구도를 조사하여 초등학교 저학년이 적절하며, Lee 등[3]은 사춘기가 시작되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적당한 시기라고 제시하였다. 예방교육의 적절한 시기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지만, 아동성폭력이 모든 학년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아동의 발달단계를 고려할 때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구분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가족부에 의해 설립된 아동성폭력전담센터에 방문한 피해아동의 자료를 활용하여 초등학교생의 성폭력 피해특성을 학년에 따라 저학년(1~3학년)과

고학년(4~6학년)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의 성폭력의 피해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실제적인 성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성폭력을 경험한 초등학생 저학년과 고학년의 피해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실제적인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함에 있다.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피해아동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한다.
- 저학년과 고학년의 성폭력의 피해특성의 차이를 분석하고, 피해특성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저학년과 고학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체적인 피해특성을 분석한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초등학생 저학년과 고학년의 피해특성 차이를 파악하고, 피해특성 간의 상관관계 및 저학년과 고학년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구체적인 피해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D시에 소재한 아동성폭력전담센터에 방문한 초등학생 피해아동의 객관적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χ^2 적합성 검정에서 유의수준 .05, 검정력 .8, 효과크기 .25로 적용하였을 때 최소 필요한 표본수 155건을 충족하고, 탈락률을 고려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D시에 소재한 아동성폭력전담기관에 등록된 만 13세 미만의 아동성폭력 사례 174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피해아동은 초등학생의 발달수준, 사춘기 시작시기 등을 고려하여 학년에 따라 저학년(1~3학년), 고학년(4~6학년)으로 구분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성별, 장애유무, 양친가족유무로 분류하였고, 여기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근거하여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포괄하는 의미[20]이며, 본 연구에

서 장애아동은 지적장애가 9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피해특성은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유형, 피해지속기간, 피해횟수, 피해장소, 피해발생시각으로 분류였다. 그 결과, 피해아동의 성폭력 피해 관련 진술이 없는 사례 10건, 관련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사례 3건, 단순 음란물 노출과 같이 본 연구의 주제와 적절하지 않는 사례 5건을 제외하여 156건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수행 전 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IRB No:40525-201501-HR-03-01)을 받았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자료는 D시에 소재한 아동성폭력전담센터의 이용동의서 제8항. 연구자료 활용에 대해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건을 분석하였으며, 센터의 법의학적검사지와 심리사회적사정기록지를 주자료로 사용하여 피해아동과 성폭력 피해특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구분하여 피해아동의 일반적 특성과 저학년과 고학년의 성폭력의 피해특성의 차이, 저학년과 고학년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구체적인 피해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χ^2 -test를 사용하였으며,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진 셀이 25% 이상일 경우에는 피셔의 정확검정을 사용하였다. 학년과 피해특성 간의 관계는 상관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1. 저학년과 고학년의 일반적인 특성

피해아동의 학년에 따른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저학년과 고학년 모두 여아가 79.1%, 82.0%로 남아보다 더 많았다. 장애아동은 저학년 13.4%, 고학년 21.3%였고, 비양친가정은 저학년 35.8%, 고학년 47.2%로 나타났다. 저학년과 고학년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을 검정한 결과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2. 저학년과 고학년의 피해특성 차이

저학년과 고학년의 피해특성 차이를 살펴보면, 먼저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에서 비친족 가해자가 가장 많았고(저학년 53.7%, 고학년 46.1%), 다음으로 친족 가해자(고학년

39.3%, 저학년 20.9%)가 많으며, 고학년이 친족 가해자에 의한 피해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6.89, p=.032$). 피해유형은 저학년과 고학년 모두 강제추행이 가장 많았으나(저학년 80.6%, 고학년 60.7%), 강간의 경우 고학년이 18.0%로 저학년 1.5%에 비해 10배 이상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학년의 피해유형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11.95, p=.003$).

피해기간은 저학년 고학년 모두 1일(저학년 58.2%, 고학년 48.3%)이 가장 많았고, 피해횟수는 단회(저학년 55.2%, 고학년 48.3%)가 가장 많았다. 피해장소는 실외보다 실내(저학년 68.7%, 고학년 78.7%)가 더 많았으며, 실내의 경우 저학년과 고학년 모두 피·가해자공동거주지, 가해자의 집, 피

해자의 집, 학교, 학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실외의 경우는 저학년은 공원, 놀이터, 옥상, 계단, 지하, 엘리베이터, 골목길의 순이었고, 고학년은 골목길, 공원, 놀이터, 옥상, 계단 지하, 엘리베이터의 순이었다. 피해발생시각은 낮(저학년 58.2%, 고학년 46.1%)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기간, 피해횟수, 피해장소, 피해발생시각은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3. 학년과 피해특성 간의 관계

학년과 피해특성의 주요변수 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학년은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r=.21, p=.010$), 피해유형($r=.27, p=.001$)과 유의한 상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Child Sexual Abuse Victims

(N=156)

Characteristics	Categories	Lower grade	Upper grade	$\chi^2 (p)$
		n (%)	n (%)	
Gender	Male	14 (20.9)	16 (18.0)	0.21 (.647)
	Female	53 (79.1)	73 (82.0)	
Disability	Yes	9 (13.4)	19 (21.3)	1.63 (.202)
	No	58 (86.6)	70 (78.7)	
Two parent family	Yes	43 (64.2)	47 (52.8)	2.03 (.155)
	No	24 (35.8)	42 (47.2)	

Table 2. Victimization Characteristics between Lower and Upper Grade Victims

(N=156)

Characteristics	Categories	Lower grade	Upper grade	$\chi^2 (p)$
		n (%)	n (%)	
Offender - Victim's relationship	Intrafamilial	14 (20.9)	35 (39.3)	6.89 (.032)
	Extrafamilial	36 (53.7)	41 (46.1)	
	Strangers	17 (25.4)	13 (14.6)	
Types of the sexual abuse	Indecent assault	54 (80.6)	54 (60.7)	11.95 (.003)
	Analogous rape	12 (17.9)	19 (21.3)	
	Rape	1 (1.5)	16 (18.0)	
Duration of the sexual abuse	1 day	39 (58.2)	43 (48.3)	2.50 (.287)
	2 days -1 year	18 (26.9)	24 (27.0)	
	> 1 year	10 (14.9)	22 (24.7)	
Frequency of the sexual abuse	1	37 (55.2)	43 (48.3)	3.82 (.148)
	2~9	18 (26.9)	18 (20.2)	
	≥ 10	12 (17.9)	28 (31.5)	
Location of the sexual abuse	Indoor	46 (68.7)	70 (78.7)	2.00 (.157)
	Outdoor	21 (31.3)	19 (21.3)	
Time at sexual abuse	Day	39 (58.2)	41 (46.1)	3.03 (.220)
	Night	17 (25.4)	24 (27.0)	
	Mixed	11 (16.4)	24 (27.0)	

관관계가 있었다. 저학년과 고학년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유형은,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는 피해기간($r=.58, p<.001$), 피해횟수($r=.55, p<.001$), 피해장소($r=-.48, p<.001$), 피해발생시각($r=.44, p<.001$)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가 가까우면 피해기간과 피해횟수가 많아지고, 피해장소는 실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은 피해횟수($r=.18, p=.029$), 피해발생시각($r=.26,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어, 피해유형이 심하면 피해횟수가 많아지고, 피해발생시각이 낮과 밤 모든 시간대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4. 저학년과 고학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해특성 차이

저학년과 고학년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피해특성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저학년의 경우 피해유형은 장애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8.64, p=.027$). 고학년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chi^2=13.69, p=.001$), 피해유형은 성별($\chi^2=5.90, p=.041$), 장애유무($\chi^2=5.91, p=.047$), 양친 가족유무($\chi^2=9.76, p=.008$) 모든 일반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논 의

저학년과 고학년 간의 피해특성을 및 차이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유형에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먼저, 가해자는 저학년과 고학년 모두 비친족, 친족 순으로 아는 사람에게 의한 피해가 75~85%였다. 이는 아동성

폭력이 주로 아는 사람에게 많이 당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21]와 일치하였다. 또한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친족 가해자에 의한 피해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족 가해자에 대한 구체적 항목을 살펴보면 친부, 의부, 모의 동거남 항목이 저학년 28.6%인데 반해 고학년은 45.7%로 많은 차이가 있어, 고학년이 가정 내 아버지의 역할을 가해자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usain과 Chapel[22]은 친족성폭력 중에서도 의부를 포함한 부에 의한 성폭력이 주로 발생하며 성폭력 피해를 당하기 시작하는 평균 연령이 초등학교 고학년에 해당하는 11.9세라고 하였고, Hong 등[23]은 근친성학대의 평균 피해 연령이 12.1세라고 하였다. 또한 장기간 피해가 지속되다가 성폭력으로 인해 회음부 손상, 처녀막 파열, 임신 등 심각한 신체적 손상의 수반으로 피해를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였다. 친족에 의한 성폭력은 친족이라는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장기간 지속되며, 심각한 형태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성폭력 예방교육 시 가해자의 범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고학년에게는 가족 내에서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실제적인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발생 시 즉시 믿을 만한 사람에게 알려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피해유형은 저학년보다 고학년이 강간 피해가 더 많아 피해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ang[12]의 아동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연구에서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강간 피해가 증가한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아동은 사춘기에 접어들면 신체적으로 성장발달하며 이차성징이 나타나 강간 피해가 증가하게 되므로 초등학교 성폭력 예방교육 시 저학년과 달리 고학년은 임신 및 성병에 대한 설명과 성폭력 발생 시 신체적 후유증에 대해 정확하고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교육하여야 한다.

Table 3. Correlation between Victimization Characteristics, Lower and Upper Grade Victims

(N=156)

Variables	X1 r (p)	X2 r (p)	X3 r (p)	X4 r (p)	X5 r (p)	X6 r (p)
Victim's grade at assault (X1)	1					
Offender - Victim's relationship (X2)	.21 (.010)	1				
Types of the sexual abuse (X3)	.27 (.001)	.12 (.128)	1			
Duration of the sexual abuse (X4)	.11 (.169)	.58 (<.001)	.12 (.133)	1		
Frequency of the sexual abuse (X5)	.13 (.105)	.55 (<.001)	.18 (.029)	.89 (<.001)	1	
Location of the sexual abuse (X6)	-.11 (.159)	-.48 (<.001)	.03 (.721)	-.37 (<.001)	-.40 (<.001)	1
Time at sexual abuse (X7)	.03 (.761)	.44 (<.001)	.26 (.001)	.56 (<.001)	.58 (<.001)	-.15 (.062)

Table 4. Victimization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Lower and Upper Grade Victims (N=156)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Lower grade						Upper grade					
		Gender		Disability		Two parent family		Gender		Disability		Two parent family	
		Male n (%)	Female n (%)	Yes n (%)	No n (%)	Yes n (%)	No n (%)	Male n (%)	Female n (%)	Yes n (%)	No n (%)	Yes n (%)	No n (%)
Offender-Victim relationship	Intrafamilial	3 (21.4)	11 (20.8)	1 (11.1)	13 (22.4)	11 (25.6)	3 (12.5)	2 (12.5)	33 (45.2)	6 (31.6)	29 (41.4)	15 (31.9)	20 (47.6)
	Extrafamilial	7 (50.0)	29 (54.7)	6 (66.7)	30 (51.7)	20 (46.5)	16 (66.7)	14 (87.5)	27 (37.0)	10 (52.6)	31 (44.3)	24 (51.1)	17 (40.5)
	Strangers	4 (28.6)	13 (24.5)	3 (22.2)	15 (25.9)	12 (27.9)	5 (20.8)	0 (0.0)	13 (17.8)	3 (15.8)	10 (14.3)	8 (17.0)	5 (11.9)
	$\chi^2 (p)$	0.12 (.923 [†])		0.84 (.891 [†])		2.73 (.255)		13.69 (.001)		0.62 (.734)		2.33 (.312)	
Types of the sexual abuse	Indecent assault	9 (64.3)	45 (84.9)	5 (55.6)	49 (84.5)	33 (76.8)	21 (87.5)	10 (62.5)	44 (60.3)	7 (36.8)	47 (67.1)	31 (66.0)	23 (54.8)
	Analogous rape	5 (35.7)	7 (13.2)	3 (33.3)	9 (15.5)	9 (20.9)	3 (12.5)	6 (37.5)	13 (17.8)	7 (36.8)	12 (17.1)	13 (27.7)	6 (14.3)
	Rape	0 (0.0)	1 (1.9)	1 (11.1)	0 (0.0)	1 (2.3)	0 (0.0)	0 (0.0)	16 (21.9)	5 (26.3)	11 (15.7)	3 (6.4)	13 (31.0)
	$\chi^2 (p)$	3.98 (.178 [†])		8.64 (.027 [†])		1.39 (.687 [†])		5.90 (.041 [†])		5.91 (.047 [†])		9.76 (.008)	
Duration of the sexual abuse	1 day	8 (57.1)	31 (58.5)	6 (66.7)	33 (56.9)	25 (58.1)	14 (58.3)	7 (43.8)	36 (49.3)	10 (52.6)	33 (47.1)	23 (48.9)	20 (47.6)
	2 days-1 year	5 (35.7)	13 (24.5)	2 (22.2)	16 (27.6)	13 (30.2)	5 (20.8)	7 (43.8)	17 (23.3)	5 (26.3)	19 (27.1)	14 (29.8)	10 (23.8)
	> 1 year	1 (7.1)	9 (17.0)	1 (11.1)	9 (15.5)	5 (11.6)	5 (20.8)	2 (12.5)	20 (27.4)	4 (21.1)	18 (25.7)	10 (21.3)	12 (28.6)
	$\chi^2 (p)$	1.24 (.588 [†])		0.31 (1.000 [†])		1.38 (.501)		3.30 (.216 [†])		0.23 (.892)		0.78 (.677)	
Frequency of the sexual abuse	1	7 (50.0)	30 (56.6)	5 (55.6)	32 (55.2)	24 (55.8)	13 (54.2)	7 (43.8)	36 (49.3)	10 (52.6)	33 (47.1)	23 (48.9)	20 (47.6)
	2-9	6 (42.9)	12 (22.6)	3 (33.3)	15 (25.9)	12 (27.9)	6 (25.0)	6 (37.5)	12 (16.4)	3 (15.8)	15 (21.4)	10 (21.3)	8 (19.0)
	≥ 10	1 (7.1)	11 (20.8)	1 (11.1)	11 (19.0)	7 (16.3)	5 (20.8)	3 (18.8)	25 (34.2)	6 (31.6)	22 (31.4)	14 (29.8)	14 (33.3)
	$\chi^2 (p)$	2.92 (.268 [†])		0.43 (.897 [†])		0.23 (.889)		3.96 (.138)		0.33 (.849)		0.15 (.927)	
Location of the sexual abuse	Indoor	11 (78.6)	35 (66.0)	5 (55.6)	41 (70.7)	30 (69.8)	16 (66.7)	12 (75.0)	58 (79.5)	14 (73.7)	56 (80.0)	36 (76.6)	34 (81.0)
	Outdoor	3 (21.4)	18 (34.0)	4 (44.4)	17 (29.3)	13 (30.2)	8 (33.3)	4 (25.0)	15 (20.5)	5 (26.3)	14 (20.0)	11 (23.4)	8 (19.0)
	$\chi^2 (p)$	0.81 (.522 [†])		0.83 (.446 [†])		0.07 (.793)		0.16 (.739 [†])		0.36 (.541 [†])		0.25 (.617)	
Time at sexual abuse	Day	6 (42.9)	33 (62.3)	7 (77.8)	32 (55.2)	27 (62.8)	12 (50.0)	10 (62.5)	31 (42.5)	11 (57.9)	30 (42.9)	24 (51.1)	17 (40.5)
	Night	5 (35.7)	12 (22.6)	1 (11.1)	16 (27.6)	8 (18.6)	9 (37.5)	4 (25.0)	20 (27.4)	2 (10.5)	22 (31.4)	12 (25.5)	12 (28.6)
	Mixed	3 (21.4)	8 (15.1)	1 (11.1)	10 (17.2)	8 (18.6)	3 (12.5)	2 (12.5)	22 (30.1)	6 (31.6)	18 (25.7)	11 (23.4)	13 (31.0)
	$\chi^2 (p)$	1.73 (.370 [†])		1.70 (.541 [†])		2.95 (.229)		2.69 (.296 [†])		3.35 (.188)		1.09 (.581)	

[†] Fisher's exact test.

학년과 피해특성의 주요변수들 간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저학년과 고학년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는 피해기간, 피해횟수, 피해장소, 피해발생시각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가 가까울수록 피해기간이 길어지고 피해횟수가 많아지며, 피해장소는 실내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은 피해횟수, 피해발생시각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며, 피해유형이 심각하면 피해횟수가 증가하고, 피해시간대는 낮과 밤 모든 시간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12, 24, 25]들과 유사한 결과이며, 가해자는 피해아동과 가까운 사이일수록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아동을 쉽게 유인할 수 있어 타인의 목격이나 CCTV 등의 물리적 증거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실내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가해자가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등 같이 있는 시간이 많고 양가감정 등으로 아동이 쉽게 성폭력을 폭로하지 못하여 피해가 지속되고 피해정도가 심각해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할 때, 가해자의 범위가 가까운 사람에 의한 피해에 대하여도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고, 피해장소는 실외 뿐만 아니라 실내 등 일상생활의 어느 장소에서든 성폭력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교육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저학년과 고학년 간의 피해특성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유형 두 변수만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두 변수가 피해기간, 피해횟수와 정적인 상관이 있으므로, 피해기간이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Rodriguez 등[26], Ullman[27]의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매우 의미있는 결과이다.

저학년과 고학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해특성 차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비양친가족에서 양친가족보다 강간 피해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Kang[24]은 아동 성폭력의 발생에 어머니의 부재가 영향을 미치며, 어린 시절 친부모와 동거하지 않았던 여성의 경우, 성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며 가족형태가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였고, Kim 등[28]은 초등학교 5~6학년의 고학년 여자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 폭로와 관련된 변인을 분석한 연구에서, 성폭력 피해가 심각할수록 또래친구보다 어머니에게 폭로한다고 하였다. 이는 부모 특히 어머니의 부재 혹은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 폭로가 지연되어 피해정도가 심각해짐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성폭력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형성이 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예방교육이 필요하며, 학교와 지역사회는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비양친가족의 취약성을 이해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취약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장애아동은 저학년과 고학년 모두 비장애아동에 비해 피해정도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im 등[29]이 피해자의 연령이 어리거나, 지적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성폭력이 이루어지고, 성폭력이 지속적, 장기화 될 경우, 성적 개입이 증가한다는 Kang[24]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장애아동은 타인의 도움에 의존하고 과잉 순응적이며 의사소통기술의 부족, 사회성 기술의 부족, 성지식의 부족 등으로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특수교육 현장에서 충분한 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장애아동들이 충분한 성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해 성학대에 노출되기 쉽다[30]. 따라서 지적장애 아동의 연령과 인지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나이가 어린 지적장애아동이라도 올바른 성지식과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조기에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지적장애인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교육은 단회가 아닌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지적장애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지적장애인에 대한 가정과 지역사회의 관심과 보호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저학년과 고학년은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유형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두 변수는 피해기간, 피해횟수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에서 피해유형의 경우 비양친가족, 피해아동의 장애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초등학생 성폭력 예방교육 시 저학년과 고학년에 따른 실제적인 성폭력 예방교육이 필요하며, 예방교육 내용에는 실제 피해특성을 고려한 교육과 함께 저학년 고학년 모두 가해자의 특성에 따라 피해기간, 피해횟수가 영향을 받으므로 피해즉시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알릴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특히 고학년의 경우 피해유형에 따라 병원진료 등이 매우 중요함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을 해주어야 한다. 더불어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 외에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해특성을 고려하여 장애가 있는 아동, 비양친가정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학생 저학년과 고학년에 따른 성폭력 피해특

성의 차이와 주요변수 간에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성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D시에 소재한 아동성폭력전담센터의 초등학교 1학년 부터 6학년까지의 아동성폭력 사례 156건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저학년과 고학년의 피해특성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초등학생에게 성폭력 예방을 위해 교육을 계획하고 시행 할 때에는 저학년과 고학년의 피해특성과 차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고학년인 경우 친족에게 강간 등 더 심각한 성폭력을 당할 확률이 증가하므로 이는 사람이라도 조심하여야 하고, 사춘기인 점을 고려하여 피해발생 시 성병 및 임신 등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빠른 시간 내에 부모 또는 믿을 수 어른에게 알리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고학년의 경우에는 성별의 차이를 고려하여 여아에게 좀 더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는 피해횟수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성폭력 재발 예방을 위해서 가해자와 상관없이 빨리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알리는 교육도 해주어야 한다. 아울러 장애유무, 가족유형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데, 이는 초등학생 교육뿐만 아니라 가정과 학교의 보호역할은 물론 지역사회에서 장애아동 및 비양친가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구분한 맞춤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현대의 흐름에 맞추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아동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교육방법에 대한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또한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아동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함께 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연구결과 일반화를 위해 지역과 대상자 수를 달리한 재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Allen JG. Coping with trauma: A guide to self-understanding. 1st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1995. 385 p.
- Kim BN. Childhood stress and trauma.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2007;15(2):67-71.
- Lee KH, Lee JY, Bae JY, Kim IO. Development of the educational program for prevention of sexual abuse in childre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3;33(2):89-199.
- Kim SJ, Park SJ, Kim SH, Kang KA. Contents analysis of sexual abuse recogniz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Journal Korean Academic Society Nursing Education. 2013;19(4):518-530.
- National Police Agency. Crime statistics of National Police Agency [Internet]. Seoul: National Police Agency. 2014 [cited 2014 November 27]. Available from: http://stat.kosis.kr/nsieu/view/tree.do?task=branchView&id=132_13204*MT_OTITLE&hOrg=132
- Kim JY, Song IH, Kim KH, Chung YK, Lee MS, Wi JM. 2010 sexual assault survey. Research Reports. Seoul: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Republic of Korea; 2010 March. Report No.: 2010-54.
- Johnson CF. Child sexual abuse. Lancet. 2004;364(9432):462-470.
- Ministry of Justice. Criminal law [Internet]. Sejong: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4 [cited 2014 December 30]. Available from: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query=%EC%9E%A5%EC%95%A0%EC%9D%B8%EB%B3%B5%EC%A7%80%EB%B2%95&x=0&y=0#liBgcolor4>
- Kim JS, Hong YH. Trend analysis and generation trends in sexual assault of child & adolescent. Research Reports. Seoul: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Republic of Korea; 2012. Report No.: 2012-03.
- Gwak CY. Fact sheet of one-stop support center for women victims and victims of school violence [Internet]. Seoul: Nation Police Agency. 2010 July [cited 2013 January 17]. Available from: <http://www.police.go.kr/portal/main/search.do>
- Lee YH, Lee, KH. The study on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child sexual violence victims & the countermeasures. Korean Criminal Psychology Review. 2007;3(2):185-217.
- Kang EY. A study on the child sexual offenders. Research Reports. Seoul: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2003 December. Report No.: 2003-24.
- Yoon IK, Jeon SK, Park JY. A study on the efficiency of sex education program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Society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2009;22(1):73-92.
- Lee SJ, Kim HJ, Kang MA, Jeong SH, Park YJ.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for sexually abused children. Journal Korean Academic Child Adolescent Psychiatry. 2008;19(1):3-12.
- Park SY. Sex education behind the times [Internet]. Seoul: Money Today. 2013 [cited 2014 October 14]. Available from: <http://news.mt.co.kr/mtview.php?no=2013093017270462896&type=1>
- Lim KB.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ducation for child sexual abuse prevention [master's thesis]. [Seoul]: Konkuk University; 2011. 110 p.
- Oh HS. (A) Study on the group treatment program for female adult survivors of childhood sexual abuse [dissertation]. Seoul: Ewha Women's University. 2003. 68 p.
- Lee GS. (The) Effects of sex education on sex-related knowledge and attitude of 5th-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 [master's thesis]. [Gwangju]: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04. 101 p.
19. Jeong GH, Yang SO, Kim SJ. Teachers' needs analysis about contents of sexual education for the lower grades of primary school. *Korean Journal Women Health Nursing*. 2007;13(1): 35-42.
 20. Ministry of Health & Welfare. Disabled welfare law [Internet]. Sejong: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3 [cited 2013 July 30]. Available from: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query=%EC%9E%A5%EC%95%A0%EC%9D%B8%EB%B3%B5%EC%A7%80%EB%B2%95&x=0&y=0#liBgcolor0>
 21. Cha JH, Park JH. Characteristics of child sexual abuse and prevention strategies in Jeonbuk region. *Korean Journal of Scientific Criminal Investigation*. 2012;6(4):278-288.
 22. Husain A, Chapel JL. History of incest in girls admitted to a psychiatric hospital.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983; 140(5):591-593.
 23. Hong KE, Kang BG, Kwack YS. A survey of intrafamilial child sexual abuse by physicians' reports. *Korean Journal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1998;9(2):138-147.
 24. Kang EY. The reality and policy of child sexual abuse. Research Report. Seoul: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2000 December. Report No.: 00-13.
 25. Kim JY. Sex crime in family members and legal alternatives for the victims.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2009;20(1):1081-1101.
 26. Rodriguez N, Ryan SW, Rowan AB, Foy DW.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a clinical sample of adult survivors of childhood sexual abuse. *Child Abuse & Neglect*. 1996;20(10):943-952.
 27. Ullman SE. Relationship to perpetrator, disclosure, social reactions, and PTSD symptoms in child sexual abuse survivors. *Journal of Child Sexual Abuse*. 2007;16(1):19-36.
 28. Kim EH, Park JO, Lee HA. A study on disclosure of child sexual abuse. *Korean Association of Victimology*. 2011;19(1):131-154.
 29. Kim SK, Park YK, Kang YD. Analysis of sexual assault victims: Based on data from a One-Stop Service Center in Chungcheongnam-do. *Korean Journal of Obstetrics & Gynecology Science*. 2012;55(10):736-744.
 30. Kim YR. Child abuse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the school's preventive roles. *The Korean Society of Special Education*. 2010;9(3):71-89.